

‘복면가왕’ 6주년...김성주 “18주간 가왕 하현우 가장 인상적”

2015년 2월18일 MBC 설 특집으로 시작

복면가수 1200여명 가왕49명 배출해

신선한 포맷으로 인기...50여 개국 수출

2015년 2월18일 MBC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복면을 쓴 연예인들의 노래 경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면 노래’는 참신했다. 그해 3월 정규편성이 확정됐고 6년째 이어지고 있다. MBC ‘복면가왕’. 1200여 명의 복면가수와 49명의 가왕을 배출했다.

6년째 MC를 맡고 있는 김성주는 “MC로서 큰 영광이자 축복”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초기 ‘2주마다 8명의 복면가수를 어떻게 섭외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인정하는 가왕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주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복면가수는 ‘하현우’(우리동네 음악대장)라고 했다.

하현우는 ‘복면가왕’의 10번째 가왕이자 3번째 남성가왕이었다. 당시 최장 기간인 11주 동안 가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여전사 컷츠걸’을 압승하며 가왕으로 올랐다.

이후 18주간 ‘복면가왕’의 역대 최다인 9연승

을 이어가며 ‘복면가왕’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가 선보인 곡들은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하현우가 속한 밴드 국카스텐 역시 대중에게 존재를 각인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김성주는 “칼날 같기도 하고 목직하기도 한 저 목소리의 매력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진심으로 놀랐던 가왕이었다”면서 “특히 음악대장의 ‘하어가는’ 정말 제 취향 저격 무대였다”고 회상했다.

‘복면가왕’에서 관객만큼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연예인 판정단이다. 김구라를 주축으로 한 이들 10여 명의 추리는 ‘복면가왕’의 보는 맛을 더했음에 틀림없다.

김성주는 판정단의 수장 김구라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복면가왕’은 그야말로 ‘미스터리 음악쇼’이기 때문에 추리하는 재미가 빠지면 그냥 일반적인

음악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판정단 사이에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밀당’을 해야 하는데, 김구라 씨는 밀당의 수위를 적당히 잘 조절해 줍니다”

“복면가수 중에는 목소리가 지문 같은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김구라씨는) 금방 알 것 같은 인물은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오리무중인 인물은 힌트를 과감히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죠. 그 때 그 때마다 녹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잘 해주는 그 마운 존재입니다.”

6년째 한 주도 쉬지 않고 ‘복면을 벗어 주세요~’ 외치며 즐기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김성주는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휴가를 내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제작진이 한 번도 결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6년간 MC로서 통련한 비결에 대해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당시에는 살짝 서운하기도 했는데, 대신 할 수 있는 진행자가 없다며 다른 출연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녹화일을 연기해 줄 때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며 제작진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복면가왕’은 그동안 50여 개국에 수출됐다. 신선한 포맷으로 2016년 ‘제49회 휴스턴 국제 영화제 TV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영국에서 열린 ‘2020 국제 포맷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베스트 리터닝 포맷상’을 받았다.



티빙, ‘신서유기’ 스페셜 편 ‘스프링 캠프’ 공개

다음달 7일 방송

티빙 오리지널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의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다음 달 공개되는 ‘스프링 캠프’는 tvN ‘신서유기’ 멤버들이 봄을 맞아 캠핑을 떠나는 에피소드를 담는다. 나영석 PD와 ‘신서유기’ IP(지적 재산)가 OTT 플랫폼에 처음으로 도전해 선보이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일 공개된 첫 티저 영상에서는 티빙을 방문한 신서유기 멤버들의 사전모임이 담겼다.

티빙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멤버들은

남다른 설렘을 표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OTT(Over The Top)의 뜻을 바로 맞추는 강호동부터 의아한 표정의 은지원,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시근, 규현, 송민호, 피오까지 여전한 멤버들의 케미가 엿보인다.

‘스프링 캠프’ 측은 “봄을 맞이한 자연에서 신서유기 멤버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펼쳐진다. 여덟 시즌 동안 호흡을 맞춰온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진진’ 모멘트는 물론, 맛있는 먹거리와 힐링 되는 자연 풍경 등이 그려지며 편안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5월7일 공개된다.

장도연, 10년 출연한 ‘코빅’서 하차

개그우먼 장도연이 ‘코미디 빅리그’ 하차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2일 방송된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장도연이 10년 동안 출연했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마지막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도연은 제작진과 인터뷰 도중 “쉬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아 “이유가 될 만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 너의 30대는 다시 오지 않는데 일에 치여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셔서 고된 끝에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 있던 기안84가 이를 듣고 “지쳤구나”라고 하자, 장도연은 “일단 저는 프로그램 몇 개를 하던 공개 코미디를 쥐고 갈 것 이라고, 이게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고갈되더라”고 전했다.

이에 이규형은 “어떤 일을 하든 매너리즘에 빠지면 힘든 것 같다”며 “저도 똑같은 공연을 1년, 2년을 할 때가 있는데 같은 상황, 같은 배우, 같은 대사(를 반복한다). 그때 매너리즘에 빠지면 연기가 될 해도 안 되더라”고 공감했다.

이날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장으로 향하던 장도연은 “진짜 묘했다. 이 마지막 길을 기억하고 싶어서 자주 창밖을 쳐다본 것 같다”고 떠올렸다.

뉴스

이가흔 측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학폭 인정 아냐”

“10여년 전이라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 남아 있지 않아”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법인 YK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 글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YK는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10여년 전이라서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 진술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

고소인의 글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가흔은 여전히 대리인을 통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YK는 “피고소인은 자신의 요청에 이가흔이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은 경정형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엑소 백현, 갑상선 질환 뒤늦게 알려져...사회복무요원 근무

다음달 6일 입소...시간·장소 비공개로 별도 행사 진행하지 않아

그들 ‘엑소’ 백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갑상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백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백현은 팬 커뮤니티 리슨을 통해 “다음달 6일로 임명통지서를 받았다”고 직접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백현이 5월6일

입소한다”며 “시간 및 장소는 비공개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현은 훈련소에 입소해 3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2012년 엑소로 데뷔한 백현은 그룹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솔로 2집 ‘딜라이트’가 100만 장 이상 판매돼 밀리언셀러에 오르고 최근 발표한 3집 ‘밤비도’ 발매 하루 만에 76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박수홍·모, ‘미우새’ 잠정 하차...제작진 “본인 의견 존중”

혼자 나오는 ‘동치미’에는 정상 출연

개그맨 박수홍과 그의 모친이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잠정 하차한다.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측은 지난 3일 “박수홍이 어머니와 함께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어머니는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제작진에게도 먼저 양해를 전했다”며 “제작진은 박수홍과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박수홍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건 아니다. 박수홍은 3일 방송된 MBN 예능물 ‘숙풀이쇼 통치미’에 출연, 밝은 목소리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박수홍은 최근 친형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노조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단 박수홍은 부모님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역측은 멈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